다산포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김 태 희

"간밤에 잘 있었는가? 나는 요사이 놈들이 한 짓에 화가 나서 밤에 이 편지를 쓰느라 거의 오경(五更 : 새벽 3~5시)이 지났다. 나의 성품도 별나다고 하겠으니 껄껄 웃을 일이다. 보고 난 뒤에는 남들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만 줄인다."

정조(正祖)는 정무(政務)와 공부로 밤잠을 못 자기 일쑤인 일 중독자였다. 노론 벽파의 지도자인 심환지에게 보낸, 이런 비밀편지가 4년간 무려 297통! 지난봄 신문을 통해 이것이 알려지자, 평소 정조를 존경하던 분은 마음이 상해 신문의 선정적 보도를 탓하기도 했다.

강고한 노론 벽파세력과 싸우다 돌연한 죽음으로 꿈을 완성하지 못한 개혁군주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벽파의 수괴와 비밀편지라니? 실록에 기록된 일이 알고 보니 이미 비밀편지로 짜고 한 짓이라니, 은밀한 공작정치? 문체반정을 외쳤던 학자군주가 상스런 막말을?

정조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오로지 올바름만 추구한 호학의 개혁군주 또는 실학 군주?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아닐까? 아직 정조와 정조시대의 정치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아무튼 이번 비밀어찰로 기록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그리고 학자군주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방대한 정조의 문집, '홍재전서'를 통해 정조와 그의 정치를 읽었다. 이제 비밀어찰을 더하여 기록의 행간을 읽고 기록을 꿰맞춰야 실상을 더 알게 될 것 같다.

그럼, 연암 박지원에게서는 무엇을 보는가? 그의 자유분방한 문체와 사상에 대해 당대에도 찬탄과 비판이 엇갈리더니 결국 금서로 취급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야 김택영이 그의 문장을 뛰어난 고문(古文)이라 평가해 처음으로 '연암집'을 엮어 간행했는데, 어떤 유림인사는 아직도 볼온시하여 반대했고, 연암을 사상계의 위인으로 본 신채호는 김택영의 '연암집'이 문자의 교묘한 것만 취한 것이라 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학운동'이 전개된 1930년대에, 어떤 이는 조선의 고전을 보았고, 어떤 이는 계급타파의 진보적 사회사상을 보았다.

어떤 이는 문장을 보고, 어떤 이는 사상을 본다. 어떤 이는 근대를 보고, 어떤 이는 탈근대를 본다. 시대에 따라 입장에 따라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다. 아무래도 저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아닐까? 아직 연암을 충분히 알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그럼, 실학에 대해서는 무엇을 보는가? 근대, 민족, 개혁 등이 교과서에 나온 실학의 요지라 기억하는데, 다른 목소리도 들린다. 근대 콤플렉스? 철 지난 민족주의? 우리도 있었다는 식의 자기 위안? 이미 권력화한 학문? 실학은 없다?

근대화 기획과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실학을 바라보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을 터. 그렇게 박제된 실학을 두고 논란을 벌일 일은 아니다. 공자의 이름을 받들면서 공자의 뜻을 어지럽힌다더니, 실학의 이름으로 허학이 자행된다면 껄껄 웃을 일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실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또 충분히 읽은 걸까?

실학은 여러 점에서 오늘과 통하는 현재성을 갖는다. 가령 외부에서 권위를 끌어와 권력화하고 교조성과 폐쇄성으로 담을 쌓는 악습이 지금도 끈질기게 이어지는 한 실학은 유효하다. 세계를 보는 관점이 화이론(華夷論)적 구조 내지 택일적 이분법의 틀에 갇혀있는 한 실학은 유효하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한 실학은 유효하다.

지난 10월 28일, 정조대왕 탄신 256돌을 기념하는 '정조학 국제학술회의'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국가경영연구소의 주관으로 수원에서 열렸다. 지방의 수원화성운영재단과 수원시가 도맡아 지원한 것이 주목된다. 또 남양주 다산 유적지에 실학박물관을 개관한 기념으로, 30일과 31일 양일간, '제10회 동아시아실학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실학박물관(관장 : 안병직)과 한국실학학회(회장 : 임형택)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 중국과 일본의 학자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의미 있는 행사들이다. 우리의 풍부한 옛것(Reference)에 대해 이해가 깊어지고 안목이 넓어지면,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도 통찰력과 창의적 상상력이 발동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다산연구소 기획실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 설

첫삽 뜬 '4대강 사업' 환경훼손 최소화해야

환경영향평가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착공됐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에 들어설 승촌보와 죽산보는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11년 완공 예정이다.

환경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최종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시행 후 영산강 수질은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부터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TP(총인)배출도 등이 대폭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수량이 줄고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할 만큼 수질오염이 심각한 영산강 수질이 양호해진다는 전망은 고무적이다.

문제는 사업구간 내 일부 습지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등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영산강 사업구간 내에 있는 습지의 절반 이상인 18곳 139만4천여㎡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 습지보호구역인 담양 습지의 경우 전체 면적의 2.7%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완 대책으로 대체 습지를 조성할 계획이나 원형 보존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영산강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대책도 미흡하다.

한번 훼손된 생태계는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환경파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착공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져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 건설로 인한 부영양화 등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환경단체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사전·사후 감시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中企 자금 회수 비 오는데 우산 뺏기 인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돈줄 죄기를 본격화했다고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내년부터 큰 폭으로 줄고 대출만기 연장과 보증비율 확대 등 각종 지원 조치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중기에 대한 자금 회수와 지원 축소는 금융위기 이후 풀린 돈을 회수하는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출구 전략'을 쓸 시점이 아니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중기 자금을 먼저 회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중기 특히 지방 중기는 돈 구경도 못한 기업이 많다고 아우성이다. 중기의 자금난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은 못해 줄망정 대출을 회수하고 자금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은 중기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 정부의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무려 46.5%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정책자금도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다 올해 645억원에 달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자금과 기술산업화 사업자금은 내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대출만기연장, 보증비율확대, 중기 신속지원제도 등 지원 비상조치도 축소된다. 중기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중기 대출을 억제한다지만 보증한도 축소와 대출 만기연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정책자금까지 줄인다면 지방 중기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愚)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나라 경제가 건실하려면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한다. 특히 지방경제에서 중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 중기가 흔들리면 그렇지않아도 부실한 지방경제는 뿌리 채 흔들리고 국가경제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비 오는 데 우산 뺏는 격'인 중소기업의 출구전략은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기 고

이 인 형

농업용수는 국가산업의 기본자원

연평균 강수량이 1천245㎜인 우리나라 수자원의 총량은 1천240억t에 달하지만 이 중 517억t이 손실되고, 723억t이 하천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하천유출량 중 바다로 유출되는 386억t을 제외하면 실제로 이용되는 수자원은 고작 337억t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용 수자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용수가 160억t으로 가장 많은 47%를 점유하고 생활용수 76억t(23%), 하천유지용수 75억t(22%), 공업용수 25억t(8%) 순이다.

이처럼 전체 수자원 이용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가 식량확보, 농업생산, 생태계 보전, 환경정화, 재해예방 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국민은 농업용수를 포함해서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과 함께 개발 후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

수자원은 국가산업의 기본자원으로 식량문제, 산업문제, 치산·치수문제, 환경문제, 수질문제, 방재문제, 지역개발문제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는 개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 이용과 활용도를 모색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물관리로 농업용수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벼농사 위주의 단순 논밭 관개용수 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개발에 따른 물 수요에 따라 수원공과 수리시설의 합리적 정비와 관리, 가뭄과 홍수 예방을 위한 방재관리 등 상호 연계된 종합적 용수관리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개발과 관리에 있어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농업용수 이용계획을 체계적으로 계획·관리해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함은 물론 합리적인 물관리를 위해 기술발전에 힘써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금세기에 들어 세계는 지금 WTO, FTA로 대륙간에 블록(Block)화로 국가간 식량전쟁, 에너지전쟁, 물 전쟁,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무한경쟁의 가속화 속에 있는 현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대한민국 발전사에서 해방 후 지속적으로 농·어업인과 함께 우리나라 농·어촌의 영농기술 보급과 농·어촌의 근대화 선도에 헌신적인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농업기반 시설과 수리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 시설물 관리와 농업용수 관리 책임을 맡아 우리나라 4천900만 인구의 주곡생산에 일익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서 농·어업 생산기반의 과학화와 기계화, 첨단화, 전문화와 합리적이며 조직적인 용수관리로 한해 없는 안정적인 식량증산은 물론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능력 있는 농·어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사회적, 국민적, 국가적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어촌의 근대화에 기수역할을 해 온 한국농어촌공사는 1등 공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 위치에서 계속 자기희생적 사명감을 불태워 농어민의 진정한 벗이 되고 농·어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

〈목포대 겸임교수〉

기 고

송 영 종

녹색성장 카드, 전남의 풍력발전

전남도에 큰 바람이 불고 있다. 쓸모없던 바닷바람이 이제 풍차를 돌려 에너지 바람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전남도는 연중 그치지 않는 바람을 이용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3면이 바다와 접해 해상풍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바람을 다스려 경제적으로 활용한다는 녹색성장 카드를 내보인 것이다.

인류의 역사발전에 있어서 바람은 오랜 기원을 두고 인간과 함께 해왔다. 바람은 문명이전 시기인 5천 5백 년 전부터 돛단배와 함선을 이용해 배를 움직이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고, 기원 후인 7세기부터는 풍차를 이용해 물을 끌어올려 관개농업과 곡식을 제분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연상태의 바람은 인간의 손을 거쳐 생명력을 얻고, 풍력과 에너지 생산을 통해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인간과 가까워져 왔다. 200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21.2 기가와트(GW)의 전력이 생산되었으며, 이는 전체 전력생산의 1.5%를 차지하는 양이다. 2009년 들어서는 80여 개 국에서 상업적으로 바람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풍력은 재생이 가능하고 청정한 에너지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이다.

이제 전남이 맘먹고 바람잡이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고인 전남은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일사량이 전국에 비해 10% 이상 많고 7m~8m/s의 빠른 해상풍속을 갖추고 있는 등 발전 잠재량이 14GW에 달해 최적의 풍력발전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같이 풍부한 바람을 에너지화하기 위해 전남도는 최근 야심 찬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전남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풍력자원이 우수한 도내 무안, 영광, 신안 지역에 26개 국내외 풍력기업이 15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5.9GW의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예정이다. 5.9GW는 약 44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영광원전 5, 6기가 생산하는 발전량과 맞먹는 규모이다.

20년 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2만5천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연간 641억 원의 지방세수가 걷히게 된다.

2020년에 이르면 연간 3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지역과 국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연 7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효과를 가져와 기후변화협약의 세계적 추세 부응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도 궤를 같이하게 된다.

전남은 이 같은 '5GW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15일 지식경제부와 시·군, 기업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와 기업의 협력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포스코건설, 동서발전 대우건설 등 굴지의 발전기업과 대우조선해양, STX중공업 및 디엠에스 등 설비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 등 금융사들이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게 돼 풍력프로젝트의 성공을 담보하게 된다.

바람은 그대로 놔두면 자연에 지나지 않지만, 잘 만 사용하면 엄청난 에너지 자원의 생산주체가 된다. 바람을 다스릴 줄 아는 전남은 풍력산업의 중심에 서가고 있다. 〈전남도 투자정책국장〉

無 等 鼓

쌀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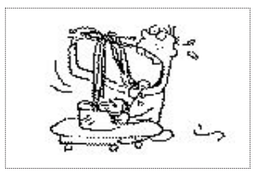
국수 문화를 세계 문명사적으로 접근했던 KBS 고품격 다큐멘터리 '누들로드'는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다큐멘터리는 국수라는 비교적 단순한 음식이 동서양을 넘나들며 문화의 매개가 됐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었다.

누들로드는 일본 NHK에 시리즈 전체가 판매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상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호평을 받았다.

중국에서 출발해 유럽과 중동을 거쳐 동남아, 한국, 일본까지 섭렵했던 다큐멘터리에서 국수의 원재료는 크게 밀과 쌀로 분류됐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어졌지만 '쌀의 나라'인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자연스럽게 쌀국수가 소개됐다.

쌀국수는 동남아 여인네들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완성된다. 여인들은 쌀로 밥을 지어 식힌 후 부드러운 가락을 뽑아 마침내 한 그릇의 맛있는 쌀국수가 완성될 때까지 정성을 다한다. 쌀국수는 뛰어난 미감과 함께 그 안에 숨어 있는 '인고'의 시간 때문에 더 큰 친근감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 한 대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면보다는 국수류를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국수는 점심식사 때 중년층이 가장 즐겨 찾고 있으며, 면류를 즐겨먹는 사람이 건강에 유리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즉, 면류를 즐겨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압이 낮은 편이었고 고혈압 및 대사증후군 유병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조사 결과 국수는 입맛을 돕고 건강에도 좋은 식품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산 쌀로 만든 국수를 시중 음식점에 공급하고 쌀 가공식품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매년 쌀이 남아돌아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기 위한 쌀 소비 확산대책이다. 건강에 좋고 농민을 도울 수 있는 쌀국수에 눈길을 돌려 봄직 하다.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

농산물 절도 예방, 농민이 직접 나서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라는 곳의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확 띄는 현수막이 있었다. 내용인즉 "마을 안전을 위해 진입하는 모든 차의 번호는 촬영·기록합니다"라고 돼있었다. 언제 어디서 자신의 차량이 찍힐지 몰라 함부로 농촌에서 절도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우리 전라남도 농촌도 절도범들로부터 안전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별거 아닌 듯 해보이지만 이런 방법은 농촌 절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 전라남북도 모든 농촌에 이런 걸 만들어 걸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추수가 막바지인 지금 각종 수확한 농산물과 현금을 노린 절도범들이 활개치기 전에 현수막뿐만 아니라 낯선 차와 사람에 대해서는 농민 모두가 신경을 써 차 번호를 적어두는 안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유병숙·광주시 광산구 박호동

여성 상주 상복에 주머니 있었으면

며칠 전 조문을 마치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상복을 입은 여성 상주가 밖으로 나와 치마로 덮인 상복의 허벅지 부분을 들춰내어 전화기를 꺼내 통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상가에 있다 보면 그곳에 찾아오기 위해 전화를 거는 친구나 친지들의 전화를 받느라 상주들도 나름대로 바쁠 것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휴대폰은 손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품목이 되었다.

병원 위치 안내 등 꼭 필요한 휴대폰을 받을 수 있도록 여자들의 상복에도 주머니를 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여성 상주들이 상복을 들춰서 걷어올리며 휴대폰을 꺼내는 민망한 장면을 연출하는 일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김만석·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A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A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 영 지 원 국 2200-511 〈FA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문 화 홍 보 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